현대불교 선정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해 불교계가 주목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정리=신성민 · 임은호 기자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각 종단 총무원장 선출

불교계 여러종단에서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5일 취임했다. 종단 개혁 이후 단일 추보 추대에 따른 첫 총무원장이다.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 법회에서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4월 9일 단양 구인사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무원 스님은 임기 4년 동안 △찾아가는 불교문화 활성화 △비구 · 비구니 스님 위상 강화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한 재가불자 종무 참여 확대와 전문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관음종 제11대 총무원장에는 법명 스님이 7월 14일 취임했으며, 같은 날 관음종 前 총무원장 홍파 대종사는 제9세 종정으로 추대됐다.



국내외 재난에 불자 모연 십시일반 동체대비 앞장

올 한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다. 불교계는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3월 초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십시일반 보시행이 줄을 이었다. 이어진 중부지방 집중호우에도 불교계는 수해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불교계를 넘어 대사회적으로도 큰 감동을 줬다.

불교계의 동체대비는 국외까지 이어졌다. 국가부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필수의약품과 식료품을 꾸준히 지원했다. 또 전쟁 발발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 모금도 활발히 진행됐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라 봉행됐다. 조계종과 상월결사는 각각 난민구호기금 20만 달러, 총 40만 달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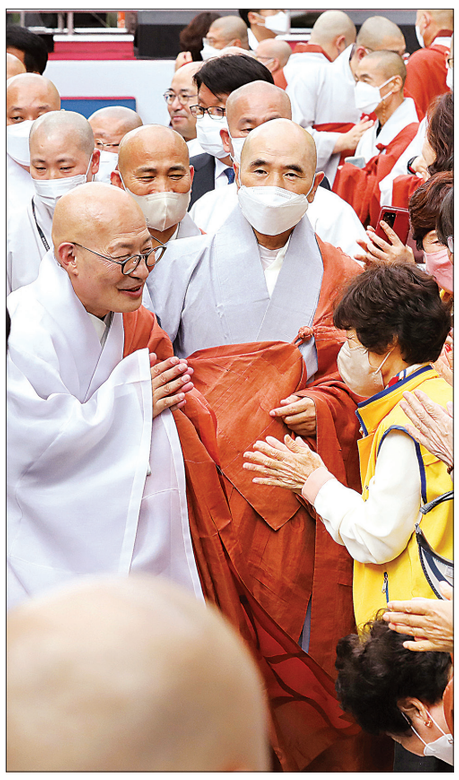


연등회 3년 만에 재개 10만 연등 밤하늘 밝혀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마음들이 담긴 연등이 서울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진행된 연등회에는 10만 연등이 밤하늘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는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거리마다 행렬을 기다리는 가득 찬 시민들의 모습에,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3년 만에 선보인 연등회이기에 장엄등 행렬을 따르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고 이를 반기는 시민들의 환호성은 다시 돌아온 일상을 실감케 했다. 봉축 메시지인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사부대중 원력으로 분황사 · 광제사 건립

조계종 36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 불사 가운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가 사부대중 원력으로 문을 열었다.

조계종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분황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 깨달음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분황사는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한 첫 사찰이다. 수행관, 도서관과 식당이 있는 다목적 건물, 지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갖췄다.

8월 9일 도심 포교 중점 도량의 힘찬 시작을 알린 세종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행정수도이며 정치 · 사회 및 지리적 중요도시인 세종시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잇단 종교편향에 불교계 적극 대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종교편향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가톨릭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주어사지 문제와 국공립 및 시립합창단 편향, JTBC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폄훼,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법계도 도용 등 올 한해 사회 전반에서 종교 편향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와 개선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불교계 움직임이 커져만 갔다.

이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 침해와 편향 사례를 수시로 수집, 사안별 대응 조직을 꾸렸다. 조계종은 교육과 연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종교평화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기존 연구사업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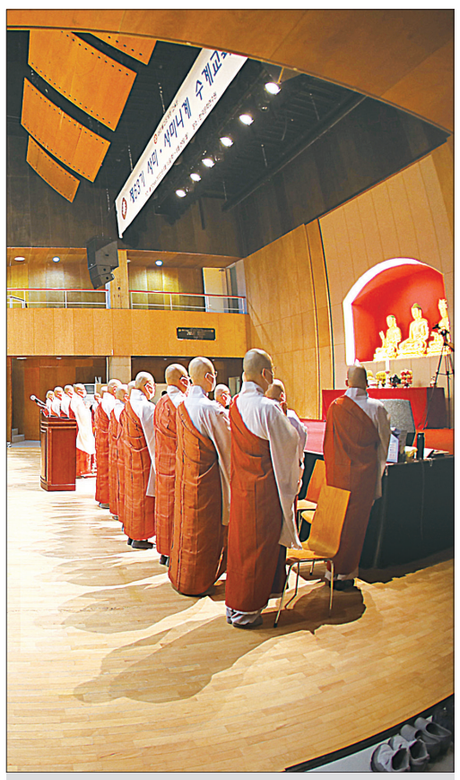


세계 석학들 한국으로 국제학술대회 잇달아

2022년에는 굵직한 국제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리며 세계 석학들이 한국을 찾았다. 세계불교학대회가 8월 15~19일 서울대 일원에서 열렸다. 국내외 불교석학 250여 명이 참석해 불교철학부터 미술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등 폭넓은 주제의 발표들이 이뤄졌다.

8월 22~26일 동국대에서는 제6차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20여 개국에서 50여명 발표자가 연구 성과를 공유 · 논의했다.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와 '공생의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리기도 했다. 한마음과학원은 9월 23~25일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18일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대학평가 2년 연속 9위 달성

조계종립 동국대가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 9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9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톱10 대학으로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학생교육과 교수연구의 성장이 눈에 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난 동국대는 대학 본연의 가치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2022년 11월 입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 연구비를 넘어선 870.8억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비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국대 측은 "제2건학을 위한 건학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단과 법인,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현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쉼없이 나아가 톱5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템플스테이 20주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2002년 운영을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템플스테이가 △한국문화 세계화 △국민행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가치 창출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경쟁력 확보와 운영인력 전문화, MZ세대와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마케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출가자 급감 대책 마련 시급

출가자 감소 문제는 이젠 해묵은 과제가 됐다. 그러나 그 심각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올해 상반기 26명, 하반기 35명이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해 1년 출가자가 61명에 그쳤다. 이제는 '출가 절벽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승 요원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 2018년 이후 응시자가 없어 출가 이후 군승이 되는 군승요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출가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출가자가 군승으로 의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계종 출가 정책을 담당하는 조계종 교육원의 경우 제9대 원장으로 혜일 스님이 취임하며 전방위적인 출가 종책 추진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지역 · 분야 저변 넓혀

6월 23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창립했다. 김의정 초대회장을 필두로 발기인으로만 1080명의 발기인을 모집됐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여성신도 조직으로, 각 지역과 직능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한다. 특히 종단 포교단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전국 교구별 포교조직을 구성,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단으로 흡수하는 등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종단과 전국 교구본사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구별 · 지역별 세분화된 신도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등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